

# 한국사

문 1. 민무늬 토기를 사용한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이 먼 것은?

- ① 주민들은 서로 평등하여 뚜렷한 계급이 없었다.
- ② 석기가 농기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 ③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④ 고인돌이 나타나고 있었다.

문 2. 다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왕 7년(687) 5월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 신문왕 9년(689) 1월에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 경덕왕 16년(757) 3월에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 ① 왕권의 전제화가 계속 진행되었다.
- ② 귀족의 경제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 ③ 국왕과 귀족 사이의 권력 갈등이 있었다.
- ④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문 3. 고려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 왕건은 승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승과(僧科)를 실시하였다.
- ㄴ. 의천은 국청사(國淸寺)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ㄷ. 지눌은 수선사(修禪社)를 중심으로 불교 개혁 운동을 주도하였다.
- ㄹ. 요세(了世)는 백련사(白蓮社)를 조직하여 선종을 전파하였다.

- ①  $\neg, \perp$   
②  $\perp, \sqsubset$   
③  $\perp, \sqsupset$   
④  $\sqsubset, \sqsupset$

문 4. 다음 내용의 국가 체제를 제정한 정권의 개혁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제1조 대한민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어 온바 자주독립한 제국이니라.
- 제3조 대한민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지니나니 공법에 이른바 자립정체이니라.
- 제5조 대한민국 대황제께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을 명하니라.

- ① 이소사대(以小事大)                      ② 동도서기(東道西器)
- ③ 구본신참(舊本新參)                    ④ 식산흥업(殖産興業)

문 5.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48년 김일성은 남로당과 연안파 인사들을 배제하고 북한 정부를 구성하였다.
- ② 1965년 한국군은 UN군의 일원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 ③ 1969년 3선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는 간접선거를 통해 1971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④ 1972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여 수령 유일 지도 체제를 확립하였다.

문 6. 다음에서 밑줄 친 ‘이 종교’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이 종교는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어 행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제천 행사가 국가의 권위를 높이는 점이 인정되어 참성단에서 일월성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보기〉-

- [illegible]

- ①  $\neg, \perp$   
②  $\perp, \sqsubset$   
③  $\neg, \perp, \sqsubset$   
④  $\perp, \sqsubset, \sqsupset$

문 7.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새로운 군대’의 활약으로 나타난 사실은?

“신이 오랑캐에게 패한 것은 그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왕에게 건의하여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였다. 문·무 산관, 이서, 상인, 농민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를 신기군으로 삼았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20살 이상 남자들 중 말이 없는 자를 모두 신보군에 속하게 하였다. 또 승려를 뽑아서 향마군으로 삼았다.

『고려사절요』

- ①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파하였다.
- ② 개경까지 침입했던 홍건적을 격퇴하였다.
- ③ 처인성에서 몽고군의 공격을 막아내었다.
- ④ 여진족을 물리치고 동북 지방에 9성을 쌓았다.

문 8. 다음 내용과 같은 시기의 시대 상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지방 고을의 향전(鄕戰)은 마땅히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령이 일에 따라 한쪽을 올리고 내리는 경우가 없지 않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중략) 반드시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양쪽의 주동자를 먼저 다스려 진정시키고 향전을 없애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옳다. 일부 아전들도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있으니 또한 반드시 아전의 우두머리에게 엄하게 타일러야 한다. 향임을 임명할 때 한쪽 사람을 치우치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거관대요』

- ① 조정에서는 향리를 없애려 하였다.
- ② 농민들은 향회(鄉會)에서 점점 배제되어 갔다.
- ③ 향임직이 요호부민에게 매매되기도 하였다.
- ④ 수령의 향촌 지배력이 점차 약화되어 갔다.

- ① 공복의 색깔은 관등에 의해 결정되었다.
- ② 진골이 처음 받는 관등은 대아찬이었다.
- ③ 5두품은 황색과 청색 공복을 입을 수 있었다.
- ④ 골품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관등에 한계가 있었다.

문 17. 다음 밑줄 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에 기초하여 나타난 사상계의 동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세기 초 노론학계 내에서는 호락논쟁(湖洛論爭)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송시열의 직계 제자들이 벌인 사상 논쟁인데 권상하와 그의 제자 한원진이 중심이 된 충청도 지방의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을 호론이라고 한다. 이 이론은 사람의 본성인 인성(人性)과 물질의 본성인 물성(物性)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권상하의 제자인 이간과 김창협이 중심이 된 낙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말한다.

- ① 양명학의 도입
- ② 동학 사상의 대두
- ③ 북학 사상의 형성
- ④ 화이론적 사유체계 확립

문 18. 조선 후기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설화 문학이 유행하여 『필원잡기』와 『용재총화』가 편찬되었다.
- ② 도시 상인층의 지원에 의해 산대놀이가 민중오락으로 정착되었다.
- ③ 우리의 고유한 자연을 그린 진경산수화가 유행하였다.
- ④ 중인층의 문예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시사(詩社)가 조직되었다.

문 19. 다음의 격문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함이다. 양반과 호강(豪強)의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 및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다.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리라.

- ① 명성 황후 시해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심이 팽배하였다.
- ② 친위대와 진위대를 신설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 ③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농민들의 적개심이 확산되었다.
- ④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항일 의식이 강화되었다.

문 20. 다음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서술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헌병 경찰에게 부여하였다.  
 ㄴ. 한반도를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았다.  
 ㄷ.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강화하였다.  
 ㄹ. 사상통제와 탄압을 위하여 고등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ㄹ - ㄴ - ㄷ
- ③ ㄹ - ㄱ - ㄴ - ㄷ
- ④ ㄹ - ㄱ - ㄷ - ㄴ